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을”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지금엔 국회에서 모든게 결정되는 시기” 새만금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 당부도

김관영 도지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청으로 출근하지 말고 최소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회로 출근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열린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국가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를 사실상 관가름할 예정소위 심사가 시작됐다. 지금은 국회에서 모든게 결정되는 시기다”면서 “남은 2주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실국장을 비롯한 실무진 모두 국회로 달려가 국가예산 확보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현안법안 통과 대응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소통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와 관련

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오해하고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도의회 및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지사는 2023년 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필수·중요사업은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경제 예산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며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실국장은 2023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주요사업 대응계획과 함께 겨울철 농업 등 재해대책,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및 콘텐츠 제작 등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김 지사는 “최근 아태마스터스 대회 참가자 모집 저조로 인해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참가자 모집과 대회 준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잼버리에 대한 17개 시도 협조를 약속한 만큼, 이를 통해 대회 홍보, 국내의 참가자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다. 유치 추진 중인 국제행사도 로드맵을 수립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의·과급효과·연계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가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관부서와 연석회의 형식으로 보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해 출결을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대도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해 질차간소화·규제완화·제도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타 시도의 경우 매일 민원처리 결과 분석·점검과 함께 민원처리기간도 30~70%이상 단축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협의해 각종 기업 관련 인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8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만경강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경강 제1지류 소양천 환경보전대책 마련 필요

권요안 도의원, 정책포럼서 “늘어나는 낚시객들로 환경훼손 심각... 금지구역 확대·수질검사 실시를”

만경강을 친환경적 개발과 생태 보전을 병행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임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만경강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권 의원은 “만경강은 발원지인 완주군 동상면 밤샘으로부터 새만금호가 만나는 만경대교까지 완주군·전주시·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 5개 시에 걸쳐 흐르고 있는 전북의 대표 하천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완주군이 만경강 중심으로 새만금·완주·전주·익산·김제·군산·진안·진북을 아우르는 만경강 신축을 위한 1.37km에 이르는 만경강 신축사업은 별종유기종 7종,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802

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반드시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최근 만경강 일대에 늘어나는 낚시객들로 인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봉동 장자보~삼례 화전보(9.4km)에 이르는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환경보전 차원에서 만경강 제1지류 인 소양천을 포함한 만경강 전 구간으로 낚시 등의 금지 구간을 확대·지정하고 소양천에 대한 생태자원 조사와 수질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오늘 포럼을 통해 단순히 만경강 개발이 아닌 보전과 조화시킬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만경강이 친환경적 개발과 함께 생태 보전이 병행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11월 소통의 날'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도, 11월 소통의 날... 김 지사, 노력·도전 당부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 초청 명사특강도 진행

전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11월 소통의 날을 개최해 김관영 도지사 900여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진심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역사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며 변화를 위해 직원들이 노

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과감한 도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열심히 미래를 향해 나가면 그 자체가 변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혁신의 역량이 축적되어 나갈 것이다”며, “직원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도와 도민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러한 명사 특강에서는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혁신의 지도력(地力)!” 함께 그리는 전북의 미래 성공 지도”를 주제로 열린 강의를 펼쳤다.

김 교수는 “오래전 지도를 가진 사람들은 봉치에 우위가 있었고 지

도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며, “지도는 단순히 지형을 나타낸 그림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담아낸 지식의 총체”라고 말했다.

한편 9월부터 새로 시작한 '소통의 날'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하는 민선 8기를 맞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변화와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고 새로운 전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을 담은 명칭이다.

특히 도는 매일 1회 행사를 개최해 도정현안을 공유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행사의 격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농어민 권익 증대 최선 다할 것”

민주 이원택 의원, 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재선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재선출됐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6일~17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에서 투표참여 선거인단 98.3%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전국농어민위원장 재선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일(수) 개최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 농민문제 농정을 견제하고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농어민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포부를 밝히며, 지방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농어촌에 대한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농가소득 향상 및 농어업 예산의 확대를 위한 참변 역할을 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전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으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 및 233개 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농어촌 현장속으로 들어가 농어민과 직접 소통하며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견제하고,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 총선 승리와 정권재탈환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 요천 논스톤 산책로 제안

남원시의회 요천경관연구회(대표 임봉섭)는 요천경관 연구활동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성과로 요천 논스톤 산책로를 제안했다.

요천변로는 많은 시민의 힐링 산책로이자 관광객의 핵심 동선인데 이동시 다리 앞의 환단보도 신화대기에 의해 흐름이 끊기고 있어,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논스톤 산책로를 개설함으로써 시민편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도로 편익성이 높아지고 환단보도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어 시민의 건강과 힐링 활동이 활성화되며 요천을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꽃단지, 경관조명 및 각종 관광시설 등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 시설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도, 수질오염사고 대응 민관 합동 도상훈련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 25일 군산국가산단서 민관군경 합동훈련 예정

전북도는 지난 18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산단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를 가정한 민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읍산단단지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식용유 보관탱크 작업중 탱크 연결소켓 파열로 누출된 폐식용유가 인근 장학천에 유입된 상황을 가정하여 도·정읍시·정읍기업환경협의회 소속 자율방재단이 합동으로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도상훈련이다.

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취약성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과정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확인과 민관 협업기관별 역할 구체화를 통한 시간대별 훈련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관주도의 사고수습이 아닌 지역 자율방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기관별 협력 강화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한편, 오는 25일 군산국가산단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가정하여 민·관·군·경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강해원 환경복지국장은 “이번 도상훈련과 25일 실시될 현장훈련을 통해 사고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 유기적 협력으로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경제 기여 정책 발굴 모색해야”

도의회, 한경수 한은 전북본부장 초빙 강연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지난 18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유관기관,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9 이후의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의원 연구모임인 ‘기업하기좋은전북연구회(대표의원 사나이)’ 주최로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을 강사로 초청, 국민연금 빅데이터 자료로 본 코로나9와 전북경제를 조망하고 지방재정 현주소를 분석,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는 기업자 정보를 토대로 생성돼 대표성, 다양성, 개별성, 속보성이 담보돼 도와 시군 읍·면·동의 경제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산·학·관이 함께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 앞서 국주영 의장은 “위기 속에서도 분명 기회는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코로나9로 어려워진 실물경제와 지역경제의 변화를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었고, 위기를 기회삼아 ‘하기좋은 전북의 경제부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전라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단이 대표의원은 “전북의 경제상황은 코로나9 전에도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며 “오늘 강연을 통해 전북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 내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지난 18일 제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읍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1조 1,200여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2023년 정읍시 용산호 주차장 및 편의공간 확충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정읍시 문화관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 정읍시 정읍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23년 정읍시 고사부리성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정읍시 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

년 정읍시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정읍시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2023년 정읍시 소거리 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향후 주요 일정은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